

박구환·오광섭·위재환·위진수 초대전

시안 갤러리 내달 15일까지

최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빅마트 비엔날레전에 문을 연 시안 갤러리는 오는 4월15일까지 박구환, 오광섭, 위재환, 위진수씨의 초대전을 갖는다.



오광섭 작 '여인'

이들은 'four spring'을 주제로 관화, 서양화, 조각,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구환씨는 바다와 어촌 풍경을 표현한 'sea of sound'를, 오광섭씨는 여인의 단아한 모습을 그린 '여인'을, 위재환씨는 정지 풍자를 담은 '행복한 지도자'를 전시한다.

한편 오는 5월2일 정식 개관하는 시안 갤러리는 이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개관전에 참여할 작품을 공모한다. 문의 062-650-22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덕원·이선경·최돈상 '삼우전'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내달 1일까지

서예가 학정 이돈흥씨로부터 사사한 강덕원, 이선경, 최돈상씨가 4월1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삼우전'을 갖는다.



이선경작 '초심'

강덕원씨는 논어의 구절을 단정된 전서체로 표현했고, 병형된 궁체로 쓴 한글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선경씨는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유치한 시인의 '생명의 서' 등을 소재로 쓴 한글 작품을, 최돈상씨는 한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형상화 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들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 작가·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미협, 연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미술대전 일정 확정

6월9일 접수·13일 입상자 발표

(사)광주·전남발달장애인의회 제24회 무등미술대전 일정을 확정하고 출품작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관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등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오는 6월9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접수를 받는다.

응모작은 국내외에서 출품된 적이 없는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입상자는 오는 6월13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문의 062-233-192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주최로 열린 '문화재 속의 비밀 찾기'전에서 한 관람객이 나이트를 통해 목재 문화재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과정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제공)

문화재 숨은 진실 밝혀볼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5월6일까지 '문화재 속 비밀 찾기전'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한(1713~1778)의 초상화는 기름종이(油紙)에 유탄(柳炭·버드나무를 태운 숯)으로 윤곽을 그리고, 얼굴색은 도드라지지 않도록 화선지 뒷면에 색을 칠하는 '배채'(背彩) 기법으로 그린 빼어난 작품이다.

하지만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초상화 곳곳의 색이 바래고, 흐릿하게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됐다.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2003년 발굴) 해저 선박에서 발견된 일종의 '택배 물표'인 목간(木簡)은 목물이 바래, 누가 어디로 보냈는지 기록이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파손되거나 변형된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는 문화재를 첨단 과학으로 복원, 문화재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5월6일까지 적외선 등 빛을 이용해 문화재의 연대 등을 측정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복원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문화재 속의 비밀 찾기'전을 연다.

전시는 과거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 전시는 과거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 나이트 ▲ 빛 ▲ 마이크로(micro) ▲ 인체 등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나이트는 목재 문화재의 제작시기와

재료의 산지, 수종 등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선의 두께가 달라지는 나이트를 통해 목재 문화재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 안좌산(2005년 발굴), 십이동파도 등 해저에서 발굴된 선박에서 나온 나무 파편의 단면을 보고 전문가들이 연대를 측정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적외선 등 빛 활용 제작 기술·연대 측정 파손·변형된 문화재 첨단과학 이용 복원 옛 기와 복제·내 몸 경혈찾기 체험행사도

빛을 보이지 않는 유물의 흔적을 찾아 주는 문화재 연구의 '요술 방망이'다. 적외선은 종이, 나무, 가죽 등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문양이나 글씨 등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적외선은 막에 포함된 탄소 성분을 찾아주기 때문에 흥분한 초상화, 목간의 지워진 선과 글씨를 어렵게 보이게 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적외선을 이용해 복원한 흥분한 초상화, 십이동파도 목간이 선보인다. 또 적외선을 이용해 찾아낸 아즈텍 문명인들의 가죽 문서의 숨겨진 문양들도 함께 전시된다. 화약을 넣어

탄알을 쏘는 병기인 승자총통 등에 X선을 투과하면 제작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를 파손하지 않고도 내부를 확인하거나 구조를 알 수도 있다.

이번 전시에는 X선을 이용해 자물쇠(조선시대), 청화백자연적, 십이동파도 선 파편 등의 내부 구조를 찍은 모습이 공개된다.

마이크로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해줘 청동거울의 제조 과정, 고려청자 비취색의 비밀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양한 현미경의 배율을 통해 청동기 표면, 도자기의 유약 층, 옛 그림의 재료 등을 관람객이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인체는 고분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DNA 측정 등 다양한 문화재 DNA 활용법을 소개하는 장이 연다. 1887년 청송부사가 경복궁 영덕현의 변사체를 부검한 내용을 담은 시체검안서를 통해 조상들의 과학 기술도 엿볼 수 있다.

또 관람객들이 자신의 혈액형별 DNA 세포 사슬 모형으로 팔찌를 만드는 체험 행사도 곁들여 진다. 이밖에 레이저를 이용해 복원된 불상 등도 함께 전시되며 옛 기와 복제하기, 내 몸의 경혈 찾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문의 061-270-20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차, 은은한 향기에 '보는 즐거움'까지

"홍차를 마시는 것은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국 가정집 거실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홍차는 아름다운 붉은 빛을 음미하며 '눈으로도' 마시는 차입니다."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자리잡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홍차 파티가 열렸다. 전남대학교 평생대학원 CEO 과정에 다니고 있는 40여명의 원생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홍차와 관련한 간단한 강의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홍차를 시음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커피, 녹차 등 다양한 차(茶)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홍차'에 관심을 갖는 애호가들이 늘고 있다.

광주에도 하나 둘 홍차 전문점이 생겨나고 최근에는 홍차 파티를 즐기거나 홍차 관련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날 참가자들이 맛본 홍차는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주로

홍차 전문가 서경숙씨 전남대 대학원생에 강좌

최근 애호가 늘어 '티 파티' 트렌드로 자리매김

밀크티로 만들어 마시는 아삼과 베르가못 향의 얼 그레이 두가지였다. 또 홍차와 곁들여서는 간식인 스크와 샌드위치, 케이크 등 간단한 먹거리도 함께 즐겼다.

홍차 파티에 처음 참여한 안광순(52)씨는 "녹차나 와인을 나누는 자리는 가끔 참여해 봤지만 홍차를 맛보는 자리는 처음이라 신선했다"며 "차를 마시면서 찬찬히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사교와 친교를 이루는 데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녹차와 중국차에 관심이 많다는 박현하(37)씨는 "카페에서 홍차를 맛차려 마셔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며 차를 접하니 색다른 느낌이 든다"며 "홍차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홍차 전문가 서경숙(59)씨는 "은은한 향기와 맛을 갖고 있고 붉은 빛깔의 '보는 즐거움'까지 주는 홍차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차잔 등 화려한 테이블 셋팅까지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지난 19일 열린 홍차파티에서 참가자들이 서경숙(사진 오른쪽)씨의 설명을 들으며 홍차를 시음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 연주회

다음달 2일 광주문예회관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 지부 (회장 이주영 목포대 교수) 정기연주회

회가 오는 4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영아·김은아, 박영주·김수현, 조미자·김미자, 나원진·조혜원, 이현희·류현숙, 이은경·한은정씨가 짝을 이뤄 생생한 '스케르초 작품 87',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리스트의 '돈 주앙의 추억', 루트슬라브스키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대한 변주곡', 라흐마니노프의 '조곡 작품 17'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t features a banner at the top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theater logos below. The theaters listed include Mega 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Hami Cinema, and Jeil Cinema. Each theater lists its current movie offerings, such as '10,000 BC', '추격자', '속명', '아웨이크', '데스디파임', '스텝업2', '마이클루베리아이즈', '마이뉴파트너', '하미시네마', '람보4', '속명', '벤티지 포인트', '27번의 결혼 리허설', '속명', '비보', '스텝업2', '추격자', '10,000 BC', '점퍼', '무등극장', '그레이시 스토리', '추격자', '10,000 BC', '댄인러브', '비보', '스텝업2', '추격자', '10,000 BC', '천일의 스캔들', '제일시네마', '속명', '데스디파임', '추격자', '아웨이크', '10,000 BC', '스텝업2'. Contact information and showtimes are also provided for each theater.